

# 신비한 정신의 진화

| 거이 머쉬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지구를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의 터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이보다 더 좋은 영혼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면...(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 3부)

## 영혼의 학교

지구에서 겪는 고난이 신의 경험의 단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역경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역경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성장하는데 왜 역경이 필수적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면 양극성과 초월에 관한 원칙이 더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막 지구라는 행성의 속성에 대해 지구가 본래 영혼의 학교라는 가설을 세웠을 뿐이다.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지한 결론이라고

는 할 수 없다. 영혼은 우리의 일부이며 형체가 없고 불멸하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류에게 영혼의 학교를 발견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 학교는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우선 목표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나는 정말이지 이렇게 외치고 싶다. “오, 인간들이여. 신을 찬양하라.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에게겐 더 낫다. 그러니 문제를 더 찾아보아라. 지금의 당신이 문제 덩어리니까.” 문제 자체가 바로 세계를 짜는 천이며 모든 고통과 문제점은 영을 위한 음식이다. 이 음식이 없으면 영은 자라지 않는다. 지구가 본래 영혼의 학교라는 말이 의심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시험해보라. 즉 자신을 신이라고 상상해보라. 신이 되려면 당연히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 창조자는 말 그대로 창조를 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창조주이므로 피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이들에겐 살아갈 세계가 필요하다. 이들은 어떤 세계에 살아야 할까? 아니, 당신은 이들에게 어떤 세계를 만들어주고 싶은가? 이 질문은 보기보다 훨씬 심오하다. 언젠가 죽기 마련인 인간에게는 이 세계가 온통 함정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점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다른 세계를 한 번 상상해보라. 지구의 자매인 달은 흥미롭긴 하지만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 황량한 천체이며 현재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반면, 금성은 구름이 잔뜩 끼었으며 단단한 땅은 난로처럼 뜨겁다. 화성은 좀 더 가망이 있기는 하지만, 먼지가 끝없이 날리는 극한의 사막으로 대기는 지구상으로부터 약 32km 상공의 대기처럼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목성과 거대한 행성들은 매우 추운데다 육안으로 보이는 표면에서는 암모니아의 슈퍼태풍이 분다. 이 태풍은 2천마일 넘게 메탄의 바다로 추정되는 곳까지 분다. 메탄 밑에 수분이 있다 해도 그곳이 생물, 특히 정신

과 영혼을 지닌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지구를 자세히 살펴보자. 위에서 말한 다른 세계에 비해 훨씬 훌륭해 보인다. 물론 내가 이 조그만 셋째 행성을 특히 편애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이 편애를 극복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간성을 인정한다 해도 지구의 미덕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우선, 지구의 표면은 유별나게 다양하며 교육적이다. 바다나 사막, 용암, 구름 등 다른 행성처럼 어느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있지 않다. 바다로 된 곳도 있고 육지로 된 곳도 있으며 얼음으로 된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곳 중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육지는 서로 대비되는 것들로 가득하다. 일부는 숲이고, 일부는 탁 트인 벌판이며 일부는 사막이고 일부는 산이며 일부는 늪이나 툰드라이다. 툰드라에는 호수가 많으며 강이 흘러들어온다. 하늘은 달처럼 완전히 텅 비어 있거나 금성처럼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있지 않고 정확히 반은 맑고 나머지 반은 흐리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양, 달, 별 뿐만 아니라 비, 눈, 해일, 천둥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와 무지개까지 볼 수 있다. 생명과 모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구는 매우 풍요롭다. 피조물 중에는 걸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기어다니거나 땅 위 곳곳을 미끄러지며 다니는 동물, 굴을 파고 사는 동물, 높은 나뭇가지로 기어오르는 동물,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동물, 하늘 위를 날아다니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동물도 있다. 또한 알다시피 모든 종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동수단과 의사전달 수단, 먹이 잡는 수단, 먹는 방법, 자손을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법을 시험해왔다. 지구는 갈등, 놀라운 사건과 추측, 복잡하면서도 당황스러운 뜻밖의 사실, 진화하는 도덕과 비통한 투쟁과 역경, 심화되는 복잡성, 사회적 불확실성, 정치적 타협,

경제적 피드백, 철학적 역설로 넘쳐난다. 지구는 몸과 마음에 자극을 주고 특히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최대는 아니라 해도)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즉 지구는 우주의 티끌에 불과하나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영혼 학교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신이라면 영혼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구보다 더 교육적이고 강한 대비를 이루며 짜릿하고 아름다우며 감질나는 세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즐길 수 있도록 세균과 질병, 독, 고통, 원한, 걱정과 갈등이 없는 세계를 창조해서 지구를 능가하는 별을 만들 자신이 있는가? 다시 말해 당신은 세계를 더 멋지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세계를 지금처럼 흥미롭고 위험한채로 내버려두겠는가? 사실, 당신이 정말 신이 된다 해도 신이 이미 창조해놓은 것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기본적 한계를 극복한다 해도 이롭기보다는 해로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림 1.

나는 오염을 영적 아름다움과 관련시키는 것이 불경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영혼 학교의 첫 번째 교훈이다. 부패 역시 성장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장미의 향기부터 단풍의 불꽃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에서 부패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나무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무턱대고 굴을 파는 나무좀에게는 썩어가는 통나무가 우아하며 살기 좋은 집으로 보일 것이다. 거리를 굴러다니는 버려진 강통도 절망의 추상적 표현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신비로운 법칙에 따라 지상의 불완전함에는 깊이가 없으나 완전함의 극치에 이를 가능성을 품고 있다. 심지어 잘 통제된 과학 실험실에서도 그렇다. 사실 내가 말했듯이 결정학자들(crystallographers)은 현미경 아래서 그 증거를 찾고 있다. 불완전한 분자에서 자기영속적인 나선형의 전위가 시작된다. 나선형 전위가 있어야만 한 층씩 이온이 증가하면서 완벽한 보석인 크리스털로 자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불완전성이 뼈에서는 크리스털과 같은 성장을 조종하고, 근육에서는 미세섬유를 정렬시키는 것이며, 미세 먼지에서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는 신비로운 요소인 것 같다.



그림 2.

영혼 학교의 특산품인 영혼을 비롯하여 모든 원형질과 유기체는 더욱 신비롭다. 본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인 영혼은 물론 존재하며 물질세계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바하울라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영혼은 고요하며 높이 비상한다. 영혼은 움직이는 한편 고요하다.” 나아가 그는 영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영혼은 신의 신호이며 천상의 보석이다. 영혼은 신비롭게도 무념의 상태이면서 예리하고 문제해결능력도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훌륭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깨닫는다.”

세상에는 아직도 고대의 미신, 즉 불행한 일은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해 화가 난 신이 안배한 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하울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인생에 닥치는 시련은 벌이 아니며 영혼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 (중략)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삶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중략) 지구는 원래 인격도야를 위한 수업 장소이다.” 지구는 분명히 세계 미술관도 아니며 운동장도 아니고 고문실도 아니지만, 이 모든 요소를(일시적이지만) 두루 갖추고 있다. 지구는 영혼의 학교로서 지구의 완전함은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함에 있다. 언젠가 사람의 몸에는 돼지가, 사람의 영혼에는 독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영혼의 학교에서 이 둘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화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소중한 우주 속에서 진정으로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볼 때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곳은 깔끔한 3에이커 크기의 스튜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숙소는 만족하며 언제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단 한 번도 마약, 암, 벌레, 사고, 가난, 전쟁이나 전쟁 소문에 시달려본 적 없는 가족들로 둘러싸인 곳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곳은 매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꾸어 주는 곳이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왜 내가 해야 해?”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해. 그러니 내가 하지 말란 법 있어?”라고 바꿔야 한다. 이곳은 엔트로피를 발생시키는 내장이 네겐트로피를 발생시키는 자궁과 피와 영양을 공유하는 행성이다. 성 어거스틴의 서사시 ‘형제 노새인 몸과 그것을 타고 다니는 영혼’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땅이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선한 이들이 자신의 몸을 부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고집스럽게 부정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인간 영혼의 진화라는 거대한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부한 동물적 욕체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온 세계에 고루 퍼져있기는 하지만, 모든 영혼을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 공정한 대우를 자랑으로 삼는 영혼 학교는 우리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어느 영혼이든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고 동일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행운은 곤혹스러울 정도로 모순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를테면 전쟁터에 폭탄이 터진 경우, 어느 군인은 끔찍한 고통을 겪지만, 병원에 입원한 다른 군인은 천국과도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또 다른 군인에게는 삶에서 신비롭게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에 재앙이 다가와 지구가 처음 탄생하던 때로 되돌아간다 해도, 어떤 영혼에게는 희망의 선율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의 제 2선율은 일종의 혁신적인 음악 박자이거나 영적으로 정화하는 것으로서 영적 가치를 널리 기쁘게 인식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영적 가치 인식은 영혼 학교의 일면이지만 나는 그것을 이성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영혼학교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

아름다움에게는 고통도, 심지어 행복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고통과 행복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움은 대립과 투쟁이 있으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다. 최고의 영적 아름다움에는 무엇보다도  
 대립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문이다. 물론, 믿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된다. 마치, 예수가 간질병자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자 그가 울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라고 답한 것과 같다(마가복음 9장 23-24).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된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나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그 일에 내 전부를 걸겠다.” 콜럼버스는 단순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전부를 내걸었다. 린드버그도 그랬고 닐 암스트롱도 그랬다. 믿음 역시 환상의 영적 형태이다. 아랍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속담에서 그 점을 똑같이 지적했다. “눈은 마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보면 믿게 된다.”

## 자명한 증거

과학자나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요소(이를테면, 물리적 실험)가 종교의 교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수없이 펼치곤 한다. 그러나 과학은 측정할 대상이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종교는 측정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에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거요?”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난 이렇


게 대답하겠다. “아니오. 의심 많은 현대 과학자를 설득하는 방법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분명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겁니다.” 굳이 증거를 찾자면, 종교적 경험은 영적 진실이며 생각하는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곳 너머에 있다는 것이다. 그곳은 상식이나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 도저히 이를 수 없다. 당신은 내가 ‘자명한 증거’라 부르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깊이 들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 학교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는가? 먼저 다음과 같은 공리(公理)에서 출발했다. “직선이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다. 당신은 굳이 그 명제를 입증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래서 그저 받아들였다. 직감적으로 그 공리가 옳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공리의 첫째 조건이다. 증명될 수 있다면, 공리가 아니라 정리(定理)이다. 증명될 수 없다면 공리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공리를 판단할 때 사고보다 깊은 지식을 통해 분명히 옳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본래부터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기에, 공리는 아무튼 신비하다. 그러므로 당신만의 공리를 속히 파악하라, 형제들이여. 돈은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관심만 기울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공리적 증거는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사상가는 공리를 못 보고 지나치겠지만, 선각자는 이해한다. 공리는 미와 같이 심오하고 비이성적인 개념은 자체로 충분해서 진실을 증거 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나 속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존 키츠의 『그리스 옛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 중 다음의 구절에서 그가 미를 이해했는데 의심을 품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미는 진실이요, 진실은 미다. 이것이 너희가 지상에서 알아야 할 전부이고 알 필요가 있는 전부이다.”



그림 3.

나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존재가 허위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이며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세계와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창공 어딘가 다른 곳에 분명히 영적인 면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겠지만, 반드시 더 아름다운 세계일 이유는 없다. 훨씬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지만 지구에 너무 열광한다는 점은 어찌면 나의 개인적인 한계다. 물론 나는 평화는 가끔씩 요원해 보이는 반면, 추함과 비참함, 무지, 증오가 지구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에게는 고요도, 심지어 행복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고요와 행복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움은 대립과 투쟁이 있으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다. 최고의 영적 아름다움에는 무엇보다도 대립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본래 아름다움에는 위로 솟아올 수 있는 것, 밝혀야 할 어둠, 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정, 그리고 섬과 호수,

나무와 별로 채워질 허공이 있어야 한다. 분명히 최상의 아름다움에  
 는 육지, 바다,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생물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세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위 극성  
 (polarity)이라고 불리는 추상적 개념이 궁극적인 신성을 향해 나아간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성함은 이렇게 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신성은 생명에 관한 다른 신비로운 것들을 모  
 두 포함하는 가장 커다란 신비이며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도 밝혀졌다. 하지만 신 말고 다른 이  
 름으로 부른들 어떤가? 신은 난해하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난해하다.  
 우리가 신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신의 섭리를 통해 완전한 무로  
 부터 우주의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주가  
 근거지로 삼는 것은 지성이다. 지성은 ‘신성한’이라는 형용사에 알맞  
 을 만큼 인간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당신이나 누군가를 뒤  
 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 이미 7세기에 알리(Ali)는 당황해 하던 인류  
 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안에 우주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지구  
 인들이여, 당신은 우주에서 모든 인류, 모든 생명, 모든 사물, 모든 마  
 음, 모든 영혼의 일부이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이해력으로 신의 영  
 광에 관한 신비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부색과 감각은 겉  
 으로 보기에는 장벽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러분을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다. 사실 우주는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 패턴 이상의 존재다. 우주  
 는 말 그대로 자신의 자아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다. 그러므로 커다란  
 자신감을 가지고 다정한 기도를 올리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오 우주여!” 우리가 경탄하며 초월을 향해 나아가면서, 적어도 지구라  
 는 무덤 속에 세속적인 자아를 내던지면서, 신비의 수평선 너머에 여  
 전히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되. 오직 신의 눈만이 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나 신의 은총에 의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별들도 실제로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온통 눈이 부시더라도 신의 영광의 베일은 빛으로 짜여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끝) 

- 이 글은 'The seven mysteries of lif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거이 머쉬(Guy Murchie)** | 1907-1997. 학교교사, 파일럿, 저널리스트, 사진가, 증권기자,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함. 1956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로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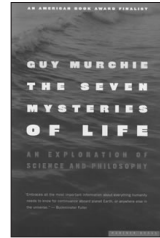
역자 | **심정요** | 덕성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하고픈 일을 찾다가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외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디서 리>(가제)를 공동번역 중이다. 번역서로 김동미 님과 공역한 이동서 <엘로이즈의 목욕 소동>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The seven mysterries of life

Guy Murchie 저 | Mariner Books 판 | \$19.95

저자는 지구 밖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관조하듯 우주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다양성에 이르는 일곱 가지 신비를 풀어간다. 저자의 17년간의 다방면의 연구가 집약되어 있어서, 참으로 풍부한 지식과 통찰을 담고 있다.



## Better than conscious?

Christoph Engel, Wolf Singer 저 | The MIT Press 판 | \$40.00

의식적 컨트롤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며 의지를 행사할 자유를 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땀가가 따르니, 먼저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편견에 영향받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인간의 의식적 결정능력과 더불어 무의식적인 능력도 탐사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하면 자유의지의 문제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